

번역의 단계별 속성 및 번역주체에 대한 논의

이 승 일
(한양대)

1. 서론

1.1. 문제의 성격

번역은 개인적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얼핏 보기에 답하기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선 번역은 번역자¹⁾가 원천텍스트를 선정하고 파악하여 본인이 판단해서 최적의 도착어로 번역문을 생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공동번역이 아닌 이상 번역을 사회적인 협업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²⁾. 하지만 번역 과정의 이면을 살펴보면 번역은 철저히

- 1) 본고에서는 translator를 칭하는 용어로 ‘번역자’와 ‘역자’라는 두 단어를 번갈아 사용한다. 대가를 의미하는 ‘번역가’를 사용하는 대신 번역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최효은 2017).
- 2) 이와 관련하여 체스터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는 개별적인 것이고, 번역은 개인적인 행위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번역텍스트는 나의 이름의 명기된, 나의 것이

공동 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지혜(2012)는 ‘제도번역³⁾’이라는 담론을 끌고 들어와 번역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속성(social facts⁴⁾)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피력한다. 그의 의하면 아무리 번역이 개인에 의해 수행된다 하더라도, 번역주체는 번역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 되지 않으며, 편집인, 감수자, 그리고 출판사의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이해와 입장이 조정되고 통합하여 나타나는 다중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기관번역을 살펴보면 그 성격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는데, 비록 개인 번역자에 의해 해당 번역이 이루어진다 할지언정, 번역의 최종 결과물은 특정 단체나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도가 번역주체에 오롯이 전달되어 완성되므로, 번역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의 문제는 쉬이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주체 역시 특정 번역자로 치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같은글) 보다시피 번역은 개인적인 것인가 혹은 사회적인 것인가와 같은 물음은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1.2. 쓰기의 역사

필자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발견했는데, 그것은 한 대학에서 ‘쓰기(writing)’ 강좌를 맡게 되면서부터다. 강의준비를 위해서 쓰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흔히 우리말에서 쓰기라고 말하면 ‘글쓰기(text-writing)’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쓰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사에 있어서 언제나 글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Ludwig 2006) 고대의 경우 쓰기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부호나

다”(Chesterman 1997:194, 강지혜 2012:1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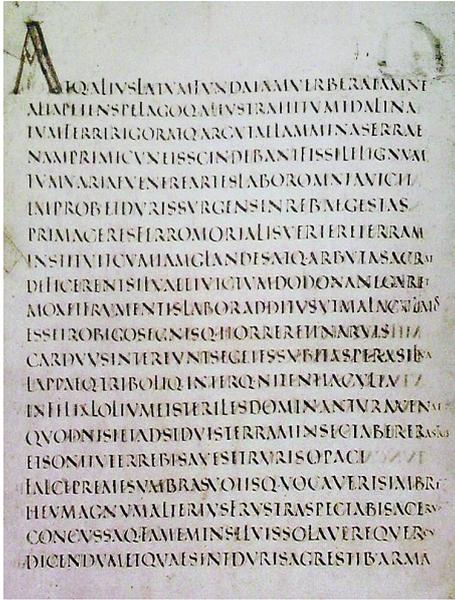
- 3) 강지혜(위의글)에 의하면, ‘제도번역’이란 제도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번역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데, 여기서 ‘제도’라는 용어는 매우 조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연구는 이 용어의 모호성을 걷어내고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이 용어를 접근하면 곤란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를 ‘사회’로 맞바꾸어 파악할 것을 권장하며,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이어질 것이다.
- 4) 여기서 이 용어는 설(Searle 1995)의 “institutional facts”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이어질 것이다.

상징기호를 쓰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며, 그 후 기원전 8세기⁵⁾부터 중세전기에 이르기까지 쓰기는 필경사가 구술자의 말을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을 의미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고대의 쓰기는 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필경사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들은 표의문자를 사용해서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곳에 끝이 뾰족한 것으로 ‘메시지(message)’를 남겼다. 이 표의문자는 사람의 말소리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과 같은 자모문자와는 달랐으며 따라서 상징적이고 추상화된 모습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자 체계 아래서는 메시지가 마치 암호화된 부호처럼 그려졌다⁶⁾. 그래서 이 시기의 쓰기는 메시지를 문자로 ‘부호화’ 또는 ‘암호화’ 하는 일종의 ‘코딩(coding)’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고대의 쓰기는 오늘날의 ‘글쓰기(text-writing)’가 아닌 ‘부호쓰기(code-writing)’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초기에 이르기까지 쓰기의 역사는 또 한 번 진화를 겪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메시지의 생산과 전달이 각기 나뉘어져 있었다. 이 시대의 기록은 구술자와 필경사의 공동 작업으로 남아 있는데, 주로 생산은 구술자가 하는 것이었고, 전달은 필경사가 하는 일이었다. 구술자가 ‘구술’로서 메시지를 작성하면 필경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앞문장의 ‘그대로’라는 점인데, 이 시기의 기록은 필경사가 전달했었고, 그들은 메시지의 내용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단지 알파벳과 같은 표음문자를 사용해서 구술자의 말소리를 받아서 적는 속기행위에 충실했던 것이다⁷⁾. 따라서 당시의

-
- 5) 이 시기는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쓰기 역사를 나눈 때임을 일러둔다. 이때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는 새로운 쓰기 문화가 형성되었다.
 - 6) 고대 수메르의 설형문자나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엄밀히 말하면, 표의문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음가를 표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알파벳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표음문자와는 달랐으며 본고에서는 표의문자의 특성을 초기 설형문자와 상형문자에 국한시켜 논하고 있다. 즉, 음가를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7) 비교해 보자면 고대의 필경사의 경우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메시지의 전달만을 담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표의문자 체계 하에서는 내용을 암호화 하는 과정에서 필경사의 필연적인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속기행위와 최적의 부호를 선택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과정은 엄연히 다르다.

쓰기는 일종의 ‘기록(recording)’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고대 이후 이 시기까지의 쓰기는 오늘날의 ‘글쓰기(text-writing)’와 달리 ‘말받아쓰기(word-writing)’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연속필기 예시



쓰기의 역사에서 오늘날의 글쓰기와 같은 것은 15세기 중세 이후 시작된다.(Ludwig 같은책) 이 무렵 서유럽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에 의해서 도입된 새로운 인쇄 기술이었다.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이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량의 책을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쓰기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활자조판을 통한 인쇄술은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상당히 절약하게 했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필경사와

같은 존재를 서서히 필요 없게 만들었다. 이후 구술사는 필경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⁸⁾. 구술자는 이제 메시지의 생산에만 전념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달도 함께 고민해야만 했다. 나아가 그들의 고민은 기록방식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소위 ‘연속필기(scriptura continua)’라 알려져 있는 이 기록방식은 지금의 단어 사이에 간격을 두면서 적는 ‘띄어쓰기(word-spacing)’랑 큰 차이가 있었는데, 위의 <그림 1>⁹⁾에서 나타난 것처럼 글

8)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건이 모든 것의 시발점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활자조판이 나오기 전부터 필경사의 도움 없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인쇄술의 보급으로 필경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Gutenberg의 업적을 새로운 쓰기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이다.

을 쓸 때 띄어쓰기를 일절 하지 않았으며 단어 간에 구별이 전혀 생기지 않는 방식이었다. 당시 이런 쓰기법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필경사가 텍스트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구술자의 말소리를 받아 적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⁹⁾. 하지만 새로운 인쇄술의 등장으로 필경사가 사라지고 구술자가 직접 쓰면서부터 쓰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연속필기 방식에서는 단어 간 구분을 전혀 하지 않고 글을 적었기에 내용파악이 한 번에 되지 않는 큰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의미를 가진 단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매번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점은 가독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렸고 구술자로 하여금 새로운 쓰기 방식을 도입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의미의 단위를 찾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한번 찾았던 것들은 표시해 두기 시작했고 급기야 공간을 두면서 적기 시작했다. 즉 오늘날의 ‘띄어쓰기’ 방식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띄어쓰기는 단순히 기록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쓰기방식의 전환을 의미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술자와 필경사의 작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구술자는 직접 메시지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단순 구술자가 아닌 작가가 되었다. 이제 작가가 된 구술자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써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읽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고치거나 다듬게 되었다. 즉 ‘보정(revision)’의 과정이 생겨난 것이다. 물론 필경사가 구술자의 말을 받아 적던 시절에도 퇴고는 있었지만 구술자가 직접 쓰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필경사는 단순 기록에 몰두한 나머지 구술자의 특별한 지령이 없으면 쓰기 과정 중에는 텍스트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받아 적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만 철자나 문장 등을 검토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작가가 된 구술자는 적는 과정 중에 자신의 생각을 글 속에서 시종일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수정과 윤문을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었다. 쓰기의 이러한 모

9) https://en.wikipedia.org/wiki/Scriptio_continua

10) 현재의 띄어쓰기 체계 하에서는 낱말을 기준 삼아 공간을 두면서 적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엄밀히 사람의 말소리는 조각으로 나뉜 분절체가 아니며 뭉쳐서 다니는 연속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당시 필경사들에게는 말소리를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더 자연스런 것이었다.

습은 현재의 쓰기 방식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쓰기’는 단순한 ‘끼적임’과는 달리 작자가 구상에 서부터 습작과 퇴고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서작성 행위를 일컫는다. 이것은 일종의 사유(reasoning)의 일환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단순히 문자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문서작성 중에 끊임없는 교정을 통해 작자의 ‘의중’을 점차 완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글쓴이의 사유는 ‘텍스트’라는 모습으로 지면 위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지 지면 위에 쓰인 문자의 조합과는 달리 작자의 의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을 의미한다. 필경사가 있던 시절 텍스트는 그저 입말을 받아 적어 생긴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술자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는 글쓴이의 사유를 지면 위 적절한 위치에 짜임새 있게 배치시켜 형상화한 논리적인 구조물이다¹¹⁾. 결과적으로 ‘텍스트’는 구술의 단순한 ‘기록(recording)’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사유가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일종의 ‘창작(creating)’의 산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재의 ‘쓰기’는 고대의 부호쓰기(code-writing)나 중세의 말받아쓰기(word-writing)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쓰기방식, 즉 텍스트작성을 의미하는 ‘글쓰기(text-writing)’로 대변될 수 있다.

1.3. 접근 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쓰기’가 곧바로 오늘날의 ‘글쓰기(text-writing)’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쓰기’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부호화(coding)와 기록(recording)의 과정을 거쳐 창작(creating)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류 문화의 소산이며 진화의 결과물이다. 쓰기의 이러한 변천 과정은 번역의 속성을 살피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번역과 쓰기의 역사는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둘 사이의 유사성은 한쪽의 속성을 파헤침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과 쓰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속성을 견주어 보자면, 먼저 번역 과정은 큰 틀에서 번역 전(1)과 번역 중(2) 그리고 번역 후(3) 세 단

11) ‘텍스트’는 문장(sentence)이나 단락(paragraph)과 같은 세부 구조를 갖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은 여러 개의 단락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지면 위에 나타난다.

계로 나눌 수 있다. 번역자는 제1단계의 원저(原著)를, 제2단계의 번역 작업을 거쳐, 제3단계의 번역서를 내놓게 된다. 그리고 이때 3단계는 교열과 편집을 거친 출판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2단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출발어를 도착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때 역자는 단순히 언어 간의 치환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source text)에 가장 최적화된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필경사들이 구술자의 말을 암화 시키는 과정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아직 표음문자가 개발되기 전 필경사는 입말이 들리는 대로 옮겨서 적는 것은 할 수 없었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가장 최적화된 기표로 구술을 부호화(coding) 했어야만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번역자는 원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없애는 등 훼손을 가할 수 없다. 이 점은 마치 중세시대 필경사들처럼 구술자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는 행위, 즉 기록(recording)만 허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는 단순히 ‘옮긴이’를 뜻하지는 않으며, 늘 자신이 선택한 최적의 표현들로 원문을 옮김과 동시에 작품에 대한 해석을 텍스트로 표출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머릿속에 담긴 원문에 대한 이해를 출발어가 아닌 도착어의 텍스트로 구현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역자는 번역 과정 속에서 늘 새로운 텍스트를 창작(creating)하는 셈이 된다. 보다시피 번역은 원문의 최적화된 ‘부호화’를 통해 ‘기록’함과 동시에 역자의 목표어로 새로운 텍스트로 ‘창작’하는 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번역은 앞서 살펴본 쓰기의 역사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쓰기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번역의 세 가지 특징—부호화, 기록, 창작—은 번역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리는 간단하다. 우선 번역이 단계별로 구조화 된다면, 그 속에서 생성되는 요소와 현상들은 따로 묶어 관찰할 수 있으며, 그 때 쓰기의 역사에서 비롯된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번역의 속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번역 전(1단계)의 출발어와 번역 후(3단계)의 도착어는 번역 중(2단계) 매개 언어의 어떤 ‘코딩’ 과정을 거쳐 생성되게 되는지, 그리고 1단계의 원문과 3단계의 번역문은 역자의 의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창작’되는지, 나아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번역자의 역할과 기능은 정확히 무엇이며 개입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또 번역주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역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위와 같은 작업가설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번역의 속성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찾는데 있어 주요한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작업가설에 근거하여 글머리에서 제시된 물음, 번역은 역자 개인에 의한 사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일종의 공적인 활동인지에 대한 논증을 펼치고자 한다. 이미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번역 주체를 한마디로 단정 짓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강지혜(2012)의 연구가 피력하듯 오늘날의 거의 모든 번역이 제도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만큼¹²⁾, 번역은 사적, 개인적, 내적(psychological)인 속성을 지녔다기보다는 공적, 사회적, 제도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면 타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논증 없이 단순히 현상만을 근거로 번역 주체를 사회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특히 공동 번역이 아닐 경우 번역 주체가 ‘개인’임을 감안한다면, 모순적 의미의 ‘사회’라는 말은 번역 주체를 더욱 오리무중으로 빠트릴 수 있다. 더군다나 번역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번역주체의 불투명성은 더욱 가중된다. 가령 출판 전 원고의 역자와 출판 후 역자는 과연 동일 선상에 두고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매우 애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의 최종 결과물은 역자 개인이 수행한다기보다는 여러 유관기관 및 관련 종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설령 개인번역이라 할지라도 번역 주체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번역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근거와 더불어 이론적 논거를 기반으로 한 논증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번역의 속성을 단계별로 탐사하면서 번역 주체에 대한 실상을 풀어헤쳐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 우선 쓰기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번역의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번역 과정을 큰 틀에서 번역 전, 중, 후 세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의 성격이 무엇

12) “오늘날 번역은 ‘비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을 만큼 ‘제도화’된 맥락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위의글:11)

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때 포퍼(Popper 1972)의 저서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에 제시하는 ‘제1 세계, 제2 세계, 제3 세계(World 1, World 2, World 3)’의 개념에 근거하여 번역의 단계별 속성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어서 각 단계에 위치한 언어, 즉 1단계의 출발어와 3단계의 도착어 그리고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World 2’의 매개 언어가 지니는 속성을 소쉬르(Saussure 1916)가 제공하는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해볼 것이다. 나아가 ‘World 1’의 원문이 어떤 절차를 거쳐 ‘World 3’의 번역문이 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설(Scarle 1995, 1969)이 구분하는 ‘야생적, 사회적, 제도적 사실(brute, social, institutional fact)’론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다. 추후 앞에서 밝힌 논거들을 토대로 번역은 어떤 ‘코딩’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기록’ 되며 어떻게 ‘창작’이 이루어지는지 논증하면서 본고에서 설정한 물음—번역은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도할 것이다.

2. 논거

2.1. 번역의 단계별 속성

앞의 단락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번역의 과정은 큰 틀에서 번역 전, 번역 중, 그리고 번역 후 과정으로 분할하여 관찰할 수 있다. 번역 전 단계의 원문은 역자가 작업을 착수하면서 비로소 번역이 시작되고 끝으로 번역을 마치면 도착어로 옮겨진 번역물을 출간하게 된다. 각각의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어떠한 번역도 이 순서를 바꿀 순 없다. 포퍼(1972)가 제시하는 제시된 ‘제1, 제2, 제3 세계’라는 개념적 도구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번역의 단계별 속성은 잘 설명이 된다. 지금부터 포퍼가 제시하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번역의 단계별 속성을 살펴도록 하자. 우선 포퍼 교수의 이론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퍼(위의책)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인식은 세 가지로 범주로 체계화 될 수 있으며, 그는 각각 제1 세계, 제2 세계, 제3 세계(World 1, World 2, World 3)

로 명명한다. 제1 세계의 경우, 자연적 세계로서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가령 내 눈앞의 돈다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1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종이 뭉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화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목전에 책이 한권 있다면 제1 세계의 관점으로는 종이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있을 뿐이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제1 세계는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주어진 대로 외부세계가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세계로부터 얻어지는 인식의 특징은 ‘자연적(physical)¹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 세계로 들어가 보자. 제2 세계는 인식자의 주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가령 위에서 예를 들었던 책의 경우, 제2 세계에서는 더 이상 종이 뭉치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텍스트의 내용은 인식자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인식자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감동과 같은 인식자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는, 텍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다만 인식자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다시, 텍스트가 아닌, 제1 세계의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만다. 요약하면 제2 세계의 인식은 인식자에 의존하여 오직 인식자의 주관 속에만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subjective knowledge)’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3 세계는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¹⁴⁾ 인식의 세계를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된 책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 세계에서 눈앞의 책은 종이 뭉치가 아닌 텍스트로 당당하게 인식된다. 인식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책은 텍스트로 여겨질 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없다. 비록 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를테면 팸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책은 텍스트로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만 한다. 또한 책의 내용 역시 인식자

13) 이 단어의 우리말 옮김은 ‘외형적’이라기보다는 문맥상 ‘자연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비록 ‘natural’이라는 단어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두도록 한다.

14)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공동체에서 불식간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social 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객관성 (absolute objectiv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tubbs 2002: 234)

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쉽게 말해 인식자가 책의 존재와 책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¹⁵⁾. 가령 필자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른다고 해서 그 책과 그 책의 내용이 세상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책의 내용은 책의 형태랑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자와 무관하게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햄릿』은 나의 서재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인근 도서관에도 서점에도 심지어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햄릿』의 내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비평이나 서평 그리고 논의나 토론은 셰익스피어와 무관하게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또 공론화될 수 있다. 즉, 제3 세계의 인식은 인식자 주관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 밖으로 나와서 존재하는 ‘객관적’ 상태의 인식을 말한다(objective knowledge).

이상과 같이 포퍼의 제1,2,3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식의 종류는 자연적, 주관적, 객관적 인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을 번역과정의 단계별 속성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번역 전(1)단계는 제1 세계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 전 단계에서 역자는 아직 실질적인 번역에 착수되기 전 상태이므로, 원저는 아직 인식자의 주관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번역 전’ 1단계의 속성은 주어진 대로, 혹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연적 인식’의 상태로 남게 된다. 둘째, 제2 단계에 해당하는 ‘번역 중’ 단계는 제2 세계의 ‘주관적’ 세상과 매우 맞닿아 있다. 이 단계에서 역자는 원문을 실제로 목표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직 출판 전 상태에 놓여 있는 번역물은 번역자의 인식의 장을 벗어날 수 없고 역자에 의존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즉, ‘주관적 인식’의 상태로 놓여 있다. 끝으로 출

-
- 15) 앞서 살펴보았던 제2 세계의 인식에서는 텍스트가 인식자 주관에만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텍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
- 16)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번역의 사전 준비 작업, 즉 출판인의 의뢰나 번역전략 수립과 같은 구상 작업은 제1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도 World 2의 ‘번역 중’ 단계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역자가 작품을 선정해서 출간 되는 시점까지 전부 번역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World 1의 단계는 철저하게 역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인식의 상태만을 상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간을 마친 ‘번역 후’ 단계는 제3 세계의 ‘객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종 단계로서 이 과정은 번역이 완료된 상태로서, 원저는 이미 도착어로 옮겨져 목표 텍스트로 존재하게 된다. 이 세계의 텍스트는 책의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텍스트는 역자의 인식의 장을 벗어나 공론화 될 수 있고 따라서 ‘객관적 인식’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요약하면, 번역의 단계별 속성은 번역 전, 중, 후 과정에 따라 자연적,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인식의 상태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제2 단계의 매개 언어

앞선 단락에서 번역의 단계별 속성을 알아보았다. 본 단락에서는 번역 전 단계의 ‘출발어’와, 번역 후 단계의 ‘도착어’ 그리고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번역이 수행중인 제2 단계의 ‘매개 언어’의 속성에 대해 분석해본다. 이 작업을 위해서 소쉬르(Saussure 1916)가 제시하는 랑그와 파롤의 개념을 분석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소쉬르(같은책)는 언어(language)를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내적 측면이고 나머지는 외적 측면이다. 내적 언어는 일종의 ‘규칙’으로서 화자가 내뱉는 말의 문법적 원리가 되어준다. 따라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두고 있는 화자는 내적 측면의 한국어를 근간으로 발화가 이루어진다. 반면 외적 언어는 화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발화를 의미하며 화자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¹⁷⁾. 소쉬르는 언어의 내적 측면을 가리켜 랑그(langue)로 불렀고, 외적 측면을 일컬어 파롤(parole)이라 명했다. 언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기 놀이(chess game)의 예를 들자면, 랑그의 경우 장기 놀이의 규칙이며, 파롤의 경우 그 규칙에 의거 자기 차례가 올 때마다 한 수, 두 수 장기짝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 누가 장기를 두든 놀이의 규칙은 쉽게 변하거나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랑 두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수로 장기짝을 이동시킬 수는 없다. 즉, 장기 놀이의 규칙은 고정이며 장기를 두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언어 역시 규칙(rule)과 사용(usage)이라는 측면에서

17)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구어(spoken language)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어(written language) 역시 개인이 실행하는 개별적 언어 행동이다.

살펴본다면 랑그는 언어의 규칙이며 파롤은 규칙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랑그와 파롤의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랑그의 경우 ‘사회적(social or conventional)’인 반면 파롤은 ‘개인적(individual or idiosyncratic)’인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장기 놀이의 비유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 ‘규칙’은 개인적 차원 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합의나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행’은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보다시피, 소쉬르는 언어의 양면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 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랑그의 경우 ‘사회적(social)’이며 파롤의 경우 ‘개인적(individual)’ 속성을 지닌다.

직전 단락에서 살펴본 랑그와 파롤을 기반으로 번역 단계별로 위치한 언어의 속성을 분석해보자. 먼저 ‘번역 전’ 단계의 ‘출발어’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살펴보았듯 ‘제1 세계(World 1)’는 인식 주체와는 무관한 ‘자연적(physical)’ 상태를 말한다. 번역을 실시하기 전 단계로서 역자와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출발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 만일 출발어가 어떤 책에 실린 글이라면, 종이 문체에 그려진 낙서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개인용 휴대기기(tablet PC)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같은 형태라면 평평한 널빤지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인식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마치 동물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제1 단계의 출발어는 랑그도 파롤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보일 뿐이다.

그 다음은 실제로 번역이 수행되는 제2 단계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 위치한 이곳의 언어는 편의상 매개 언어¹⁸⁾로 부르기로 하자. 역자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번역을 착수하게 된다. 출발어는 이제 인식자의 주관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다. 역자는 본인의 시각으로 음미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차츰 출발어를 주관 속의 매개 언어와 연결시킨다. 추후 매개 언어를 빠져나와 출발어는 도착어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역자의 주관 속에 있는 매개 언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랑그로 볼 수 있다.

18) 본고에서 이 용어는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메타언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번역 중 역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연결 짓는 ‘어떤 언어’를 상정할 뿐이다.

첫째, 매개 언어는 내적 언어의 형태로 ‘심리적(psychological)’인 상태로 존재한다. 둘째, 출발어가 매개 언어를 통해 도착어로 이동할 때 임의적 전환이 아닌 철저한 ‘사회적 합의(social agreement)’를 바탕으로 옮겨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매개 언어는 역자의 ‘주관 속’에서 일종의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 언어 체계가 지닌 ‘사회적 약정(social convention)’ 관계를 철저히 이해하면서 이행된다는 것이다. 가령 영어의 ‘A’라는 기호를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에, ‘기역(ㄱ)’이나 ‘가’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니은(ㄴ)’이나 ‘나’로 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의 체계 속에서 ‘A’가 차지하는 것과 우리말 구조 안의 ‘니은’이나 ‘나’가 위치하는 것은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두 언어 사이의 조정 작업은 각 언어 체계 속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시피, 매개 언어는 번역자의 주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두 언어 간의 체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출발어를 도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근거-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속성-를 바탕으로 매개 언어의 특성은 랑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제3 단계의 ‘도착어’의 속성을 알아보자. 이 단계는 출간이 완료된 번역 후 상태를 말하며, 객관적 인식의 범주에 해당한다. 또한 목표 텍스트는 물리적 형태-책이든 전자파일이든-에 상관없이 공론장에 남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착어의 속성은 ‘파롤’로 대변될 수 있다. 첫째, 목표 텍스트는 역자 개인의 언어 ‘수행’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원저에 대한 역자의 ‘특유한(idiosyncratic)’ 이해와 견해가 배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일한 원작이라 할지라도 번역은 역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옮겨진다. 랑그(*langue*)인 매개 언어를 약간 다르게 ‘실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번역자에 따라 원작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자의 ‘개성’이 작품 속에 스며있기 때문이다¹⁹⁾. 한마디로, 도착어의 속성은 ‘파롤’이다.

이상과 같이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을 바탕으로 번역 단계별로 존재하는 언

19) 도착어가 ‘파롤’이라고 해서 제3 세계의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파롤을 읽게 될 독자들 역시 그들의 내재적 언어인 ‘랑그’를 통해서 작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의 속성을 분석해보았다. 번역 전, 중, 후 단계에 순차적으로 대응했던 출발어, 매개 언어, 도착어의 속성은 자연적 상태로 존재하거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태의 랑그이거나, 또는 개별적 언어 수행을 통해 개성을 표출하는 파롤임을 알 수 있었다.

2.3. 원문과 번역문

앞선 단락에서 출발어, 매개 언어, 도착어에 대한 속성을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의 근거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번 단락에서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번역의 단계별 속성을 고려해볼 때, 각각의 텍스트는 번역 전, 제1 단계와 번역 후, 제3 단계에 해당한다. 제2 단계에 속하는 텍스트는 따로 없으므로 이 단계는 별도의 이론적 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번역 중에 텍스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위의 분석을 위해서 설(Searle 1995)이 제시하는 ‘야생적, 사회적, 제도적 사실(brute, social, institutional fact)’의 구분법을 판별 도구로 삼을 것이다. 우선 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설(위의책)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다음의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식자와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있는 경우, 둘째 인식자와 관련해서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오직 공론장에서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첫 번째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포퍼의 제1 세계와 비슷하다. 만일 목전에 책이 있다면 책은 종이를 구성하는 어떤 화학적 분자 구조로만 존재할 뿐이지 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책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인식자와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설은 이것은 일컬어 ‘야생적 사실(brute fact)’²⁰⁾로 부른다.

다음은 인식자와 관련해서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눈앞의 망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망치는 못을 칠 때 쓰는 연장이다. 하지만 망치는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할 수 있다. 파리채가 없을 경우 벌레를 잡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전투와 같은 극한적 상황에서 무기가 없을 경

20) 이 용어의 최초 사용자는 설이 아닌 다른 학자이다(Anscombe 1958). 하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설의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우 망치를 휘두를 수도 있다. 보다시피 인식자의 상황에 맞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망치는 여전히 연장이며 그것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망치의 존재 방식이다. 비록 누군가 망치를 공구 아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망치의 존재는 공동체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을 설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구분한다.

끝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오로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설은 이것과 관련하여 화폐의 경우를 예를 든다. 지폐의 경우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종이로 존재하지 않으며, 적어도 해당 공동체 안에서는 일정한 가치에 대한 척도나 지불 수단으로 존재한다. 또한 인식자가 외면한다고 해서 화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아무나 지폐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폐는 오직 제도적인 맥락을 바탕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만일 이것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무가치한 종이나 위폐에 불과하다. 또한 지폐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생성시키기도 한다. 해당 공동체에서 지폐 소지자는 액면가만큼의 가치를 차지할 권리를 부여받고, 부정사용 시에는 엄중한 재제가 가해진다. 다시 말해, 제도적 맥락을 벗어난 사용에 대해서는 의무나 구속력 따위의 강제력이 행사된다. 보다시피, 지폐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가 부여된 징표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지폐는 지폐 이상의 위력-권리나 의무-을 발휘한다. 그 밖의 결혼²¹⁾, 졸업, 군대, 면허증 등등 제도적인 맥락이 받쳐주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설은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이라 부른다.

위에서 살펴본 설의 세 가지 존재방식을 근거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자. 번역 전 제1 단계에 위치한 원천 텍스트의 경우, 아직 역자가 번역을 수행하기 전 역자와 상관없

21) 결혼의 경우 제도적 맥락이 없다면 ‘동거’나 ‘사실혼’에 그치고 만다. 이 예는 설의 세 가지 존재방식을 비교하는 예로서 매우 요긴하다. 동거의 경우 단지 공생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야생적’ 사실이라면, 사실혼의 경우 ‘사회적’ 사실에 해당한다. 적어도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어느 정도 존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과 같은 ‘제도적’ 사실이 생성시키는 부부 간의 권리나 의무와 같은 것은 발생시킬 수 없다.

이 ‘World 1’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주어진 방식대로 존재하는 ‘야생적 사실(brute fact)’로 판단된다. 이미 원천 텍스트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번역자의 인식주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하지만 역자가 원천 텍스트를 읽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텍스트가 인식주관 속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 만에 하나 그 책을 읽고서 번역을 결심한다면 그 행위는 번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²²⁾에 해당하므로, 원천 텍스트는 더 이상 제1 세계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번역 전 단계를 벗어나 슬며시 번역 중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이 진행된다면 번역자는 자신의 ‘매개 언어’를 활용하여 원천 텍스트의 출발어를 도착어와 ‘중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원천 텍스트의 속성은 제1 단계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더 이상 ‘World 1’에 놓여있지 않다. 그리고 역자의 주관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매개 언어의 중재를 받아 랑그가 출발어에 투사되기 시작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매개 언어’의 속성은 역자가 내적으로 지닌 랑그이다. 그리고 랑그의 속성은 ‘심리적’이면서 ‘사회적’이다. 따라서 랑그가 투영된 제2 단계의 원천 텍스트는 ‘내적’ 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설의 두 번째 존재 방식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s)’과 일맥상통한다. 즉, 인식자와 관련해서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 단계로 진입한 원천 텍스트를 다시 한 번 떠올리자면, 역자의 주관 속에서 내적으로 존재하면서 랑그인 매개 언어가 투사되어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번역 중 단계의 원천 텍스트는 ‘사회적 사실’이다.

이제 제2 단계를 빠져나와 최종 단계인 ‘제3 세계(World 3)’로 진입해보자. 출간이 완료된 이 단계는 목표 텍스트와 함께 마무리된다. ‘제3 단계’는 ‘객관적 인식(objective knowledge)’의 범주로서, 목표 텍스트의 외형적 형태—종이든 전자파일이든 도서관에 있든 개인 서재에 있든 등등—에 상관없이 오직 텍스트의 ‘내용’으로만 존재하게 되며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평가된다. 또한 출판법을 인정하는 해당 공동체라면, 출간이 완료된 서적에 대하여 법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누군가 이것을 위배한다면 ‘제재’나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저

22)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에서는 번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번역 중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작권'으로 불리는 이것은 목표 텍스트가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게끔 해준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 받지는 못한다. 설령 동일한 내용의 원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획득될 수 있고, 다시 말해 출판이라는 '제도적' 맥락 하에서만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목표 텍스트는 단순히 지면 위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텍스트의 이런 존재 방식은 설의 분류 중에서 세 번째 유형, 즉 사회 구조 속에서 제도적 뒷받침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며, 따라서 제3 단계의 목표 텍스트는 설의 용어를 빌리자면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s)'이다.

이상과 같이 설의 세 가지 존재 방식, '야생적, 사회적, 제도적 사실(brute, social, institutional fact)'에 의거하여, 번역 단계별로 위치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제1 단계의 위치한 원천 텍스트의 경우, '야생적 사실', 제2 단계로 진입했을 경우, '사회적 사실', 제 3단계의 목표 텍스트의 경우, '제도적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3. 논증

현재까지 앞의 논거 단락으로부터 번역의 속성을 단계별로 분할해서 관찰하고 각 단계별로 위치한 언어와 텍스트의 속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단락에서는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물음에 대해 논증해보겠다. 서론에서 쓰기의 역사로부터 번역의 특징을 부호화(coding), 기록(recording), 창작(creating)의 세 가지 견지에서 관찰해 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견지를 축으로 해서 번역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번역은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특히 번역주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3.1. 기록

먼저 번역의 '기록'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보자. 원칙적으로 역자는 원문

에 훼손을 가할 수 없다. 마치 중세시대 필경사처럼 구술자의 입말을 토씨하나 빠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의 개입이 최고로 이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엄중한 가치중립을 지키는 것은 번역의 속성상 불가능하다. 이미 원문을 목표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2 단계의 매개 언어를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 하게 되므로 도착어의 성격은 ‘파롤’로서 번역자의 개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완벽한 가치중립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번역문의 속성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 출간을 끝낸 목표 텍스트는 ‘제3 세계(World 3)’에서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오직 내용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즉 공론장에서 객관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 논의되고 평가된다. 이때 사람들은 역서와 더불어 역자에 대한 논의와 평가도 함께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자에 대한 평가가 그 개인에 대한 인물평은 아니며 역서와 연관된, 일종의 품평의 일부로서, 번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역서와 역자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이해된다면, 다시 말해 작품 속으로 작가가 배어들어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역서의 번역 주체는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World 2의 단계에서는 역자와 관련해서만 번역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역자를 벗어나는 순간 World 3의 공론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다음과 같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제2 단계의 인식자가 책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 내용도 사라지지만, 제3 단계의 책의 내용은 인식자와 무관하게 공론장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2.1 단락에서 예를 들었던 『햄릿』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2 세계의 역자와 제3 세계의 역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신이 번역했다 할지라도, 제2 세계의 역자는 자신의 저서에 적힌 모든 것들을 기억하거나 알지는 못한다. 반면에 제3 세계의 역자는 역서와 함께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서에 대한 전능한 상태로 인지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저자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세계의 번역자는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야 한다. World 2의 역자는 역서에 대해 제한적인 존재인 반면, World 3의 역자는 전능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저에 대한 진정한 ‘기록’을 수행하는 역자는 주관적 인식의 사적 영역에 머무르기 보다는 공론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역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 세계의 역자는—비록 자신이 번역했다 할지라도—주체가 될 수 없다. 반면 제3 세계의 역자는

- 기록자로서 - 번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2. 부호화

다음은 번역의 ‘부호화’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보자. 번역에 있어서 출발어를 도착어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부호화의 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 마치 고대 이집트의 필경사들이 파라오의 구술을 상형문자로 형상화할 때처럼, 역자들은 최적화된 부호를 통해 출발어를 도착어로 이동시키려 한다. 부호화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World 1의 출발어는 World 2의 매개 언어의 중재를 통해 World 3의 도착어로 전환된다. 실질적인 부호화 작업은 제2 단계에서 진행되며, 이때 역자는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체계를 자신이 지닌 매개 언어의 랑그를 통해 조정과 조율을 시도한다. 그래서 중재가 완료되면 파롤 상태인 도착어로 제3 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랑그의 속성이 ‘사회적(social agreement)’이라는 것, 파롤이 ‘개인적(idiosyncratic)’이라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단계별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World 3은 객관적 상태의 범주이기 때문에 파롤과는 맞지 않고, World 2 역시 주관적 상태의 범주인데 공적 영역의 느낌이 강한 ‘사회적’ 속성과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면, 이 현상은 용어의 역설이 만든 착시에 불과하다. 우선 매개 언어의 본질인 랑그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자. 매개 언어는 역자의 머릿속에 ‘내재’하는 ‘심리적’인 상태의 언어 체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출발어나 도착어처럼 역자의 주관을 벗어나서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식자 주관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속성이 ‘개인적(individual)’이지는 않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랑그는 언어의 구조나 ‘체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 언어의 체계가 사적일 순 없다. 비록 역자의 머릿속에 있지만, 매개 언어는 결코 사적(private) 속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부호화’는 역자의 머릿속에서 ‘내적’으로 진행되지만 결코 ‘개인적’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여서, 이러한 속성을 번역의 주체 문제와 연관지어 볼 때, 종종 다음과 같은 견해 - ‘번역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적 소산이다.’ - 에 대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음

을 살펴보자. 종종 출발어와 도착어를 중재할 때 역자에게 복수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가령, A는 ‘기역(ㄱ)’과 ‘가’ 둘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자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일한다. 그러나 역자는 선택지 자체를 만들 순 없으며 랑그인 ‘매개 언어’가 제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번역은 역자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자는 사회에서 정해둔 선택지 중에서 결정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역자는 사회적 행위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호화’와 관련된 번역 주체는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킬 수 없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답을 하자면, 부호화를 수행하는 역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번역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

3.3. 창작

끝으로 번역의 ‘창작’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보자. 잠시만 쓰기의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글쓰기(text-writing)’는 작성자의 머릿속 생각을 텍스트의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번역은 역자의 머릿속에 있는 원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목표 텍스트로 끄집어내는 ‘창작’의 과정에 해당했었다. 이것은 단지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른 모습의 텍스트로 생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이었다. 제2 단계의 원천 텍스트는 역자의 주관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객관적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었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역자의 이해는 매개 언어의 중재를 받아 목표어로 구현되고, 마침내 출간이 완료되면서 제3 단계의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출간된 번역서는 이제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서 든든한 뒷받침을 받으며 저작권이나 판권과 같은 권리와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엄밀히 출간 바로 직전의 제2 단계의 원고와 이제 막 출간된 제3 단계의 텍스트는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도적’ 측면에서 둘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알다시피,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출간 전 원고는 아무런 ‘권리’를 갖출 수 없지만 출간된 목표 텍스트는 텍스트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이것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 부를 수 있다. 즉, 단순히 생각을 텍스트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에서 창작을 칭할 뿐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권리까지도 생성했다는 의미에서도 창작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창작’의 관점에서 번역은 단순히 역자의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공적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은 다분히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번역의 이러한 속성은 주체 문제와 결부되면 더욱 모호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출간이 완료된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번역자는 따로 있지만 제도적 맥락에서 권리를 갖추지 못한 역자라면 그 역자를 두고서 번역 주체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특히 기관이 의뢰한 번역의 경우 목표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기관이 소유한다면 해당 텍스트의 번역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어쩌면 실제로 번역에 참가한 역자를 두고서 주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만, 출간된 목표 텍스트의 번역 주체는 제도적 맥락에서 가려내야 하므로 쉽게 판단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목표 텍스트에 대한 주체는 실제로 번역에 참여한 역자 개인에게서 찾기보다는, 제반 권리를 소유한 자로부터 찾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는 제도적 맥락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번역 주체에 대한 답을 하자면, ‘창작’을 수행하는 역자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사적 차원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적’ 맥락 하에서 창작을 이행한다면 주체가 될 수 있다.

3.4. 번역의 속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번역의 단계별 속성을 논거로 번역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증과 함께 번역 주체에 관한 몇 가지 논의를 해보았다. 쓰기의 역사에서 추출한 번역의 세 가지 관점으로부터, 번역은 ‘기록’의 측면으로는 공론장에서 객관적 상태로 인식되며, ‘부호화’의 견지에서는 사적인 속성을 띠지 않았으며, ‘창작’에 시각에서는 제도적 행위로 판명되었다. 번역 주체 역시 ‘기록’은 제3 세계의 역자에 의해 수행되며, ‘부호화’는 오직 공적 차원에서 이행되며, ‘창작’은 제도적 기반 하에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번역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번역의 속성과 관련한 논증을 시도하였다. 특히 번역 주체 문제에서 시작된 번역의 속성, 사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함께 보았듯, 번역의 속성에 대해서 논증 없이 개인적이라고 하거나 사회적이라고 단정 짓는 등, 상식적 차원의 답변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번역의 특성이 매우 다중 적이고 심층적이었기에, 번역의 속성은 어떠한다고 간결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역을 단계별로 분할시켰으며,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포퍼와 소쉬르 그리고 설의 개념적 도구를 바탕으로 번역의 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쓰기의 역사로부터 추출한 번역 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앞에서 분석한 번역의 단계별 속성을 투영시켜 본고가 제시한 물음 및 번역 주체에 관하여 답변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번역의 속성과 관련하여 개인적 자질보다는 사회적 특질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물음은 향후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지와 각도에서 또 다른 논증을 통해 보다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깊은 번역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7-32.
- 최효은 (2017) 「번역가 연구: 유형기, 본격 기독교 번역자」, 『번역학연구』 18(2): 229-53.
- Anscombe, Elizabeth (1958) 'On brute fact', *Analysis* 18(4): 69-72.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 Ludwig, Otto (2006) *Geschichte des Schreibens*, Berlin: Walter de Gruyter.
- Popper, Karl (1972) *Objective Knowledge*, Oxford: Clarendon.

- Saussure, Ferdinand (191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 Harris, Roy in 1983) London: Duckworth.
- Searle, John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London: Penguin.
- Searle, John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ubbs, Michael (2002) *Words and Phrases*, Oxford: Blackwell.

[Abstract]

On The Procedural Features and Subject of Translation

Lee, Sung-Il
(Hanyang University)

Can we reasonably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ssence of translation lies in being individual or social? To tackle the questio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features of translation, detailing the step-by-step structure of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recording, coding and creating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history of writing. In doing so, in the same line of reasoning, the present paper touches upon a couple of issues concerning how we identify the one who does in actual fact translation. The article presents the findings as follows: in World 1, as the first leg of translation, there are brute facts in terms of physical knowledge; in World 2, as the second step, there are social facts in terms of subjective knowledge; and in World 3, as the final stage, there are institutional facts in terms of objective knowledge.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nature and subject of translation can be found in being social, rather than individual, and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 in the sphere of translation-discourse.

▶ Keywords: institutional fact, writing history, langue, objective knowledge, translation discourse

이승일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orionist@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담론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